

2024 대한민국 헌혈공모전(수혈 수기)

제목

핏줄로 이어지다

저는 본래 핏줄이 얇아 초등학교 시절 건강검진을 받던 날에는 늘 팔뚝에 바늘자국이 3개 이상은 생기는 아이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양쪽 팔뚝을 다 찢리고, 손등까지 내놓았음에도 혈관이 잡히지 않아 결국 손목에서 뽑은 적도 있으니 말은 다한 것이겠죠. 이런 제게 주삿바늘 공포증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행히 성인이 되어서는 주사를 맞을 일이 별로 없기도 했고, 간혹 주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간호사님에게 “제발 세계.. 아주 세계 때려주세요” 하고 간청 드리며 나름대로 두려움을 극복해나갔습니다.

이렇게 주사와 대면대면한 관계를 유지하던 저에게 ‘헌혈’은 상당히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며 1분 남짓 피를 뽑는 것도 그렇게나 힘들었는데 그에 몇 배나 되는 시간 동안 바늘을 몸에 꽂고 있어야 한다니!

거기에, 물론 잘못된 정보임은 너무나 잘 알지만, 헌혈에 대한 일종의 도시괴담 같은 것들이 상상력을 자극하여 왠지 모를 거부감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헌혈에 대한 관심이 0에 수렴하던 제가, 2023년 12월 두 발로 직접 헌혈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핏줄이 얇아 헌혈 시간이 긴 성분 헌혈은 꿈도 꾸지 못하지만, 헤모글로빈 수치도 간당간당하여 두 번에 한 번꼴로는 퇴짜를 맞는 신세지만, 열심히 예약까지 걸어가며 며칠 전 3번째 헌혈을 마쳤습니다. 헌혈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횡수를 적기 민망할 정도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헌혈을 하겠다는 일종의 다짐과 각오를 담아 적습니다. 인생에서 헌혈이라는 단어가 없을 줄 알았던 제가 이렇게 헌혈에 진심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때문입니다.

당뇨로 시작해서 췌장암으로 변진 암세포는 1년 반이라는 시간 아버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암이 발견되었지만, 위치가 좋지 않아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크기를 줄여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20차레가 넘는 항암치료를 받으셨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 뒤로는 암 수술이 아닌 연명을 위한 크고 작은 수술들이 이어졌습니다.

척추에 장치를 심어 등허리의 통증을 줄여주는 수술, 암세포가 다른 장기까지 번져 더 이상 스스로 식사를 하실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음식물을 직접 위에 주입하는 수술 등 제가 다 알지도 못하는 자잘한 수술들이 진행되었고 아버지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어갔습니다.

처음 당뇨 판정을 받고 직접 차를 끌고 내원하시던 초반 1년부터, 더 이상 거동할 수 없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된 반년의 시간. 제 일상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갈수록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몸에 주렁주렁 호스를 달고 있는 모습이 더 익숙해지는 날이 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병원 면회도 자유롭지 못했는데, 1-2주에 한 번 뵈러 갈 때마다 몰라보게 빠른 속도로 야위어갔고, 아버지께 연결된 팩은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수술을 받으셨던 주에는 여러 약품 팩들 사이로 어김없이 혈액 팩이 함께 걸려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 팩들 사이에 붉은 혈액 팩. 그게 그렇게 강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투명한 팩들도 마음 아팠지만 다른 사람들의 피가 있어야 아버지가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종종 보이던 혈액 팩은 없고 투명하지도, 붉지도 않은 노르스름한 팩이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는 아버지께 정체를 물으니 그게 혈액 팩이라고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피는 다 붉은 줄 알았는데 노란색 피라니, 아버지는 저 피가 이질적으로 느껴지진 않으실까 혹시 무섭진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면회 도중 혈액 팩이 거의 다 떨어져서 중간에 혈액 팩을 갈고 다시 내려오시려다가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대로 면회를 마친 적도 있습니다.

수혈에 관련된 일화들은 아주 소소했고 일상의 여러 대화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버지의 투병 과정에서 수혈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혈은 그저 피가 부족하면 똑같은 혈액형을 찾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피의 종류와 양, 시간 등을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중요한 처방이자 치료의 과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어준 피로 아버지와 같은 중증 환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수술을 시도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핏줄이 아버지께로 이어져 수술이 어려운 최장암 환자로서는 드물게 새로운 치료법이나 수술들을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병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 작년 초,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말 그대로 고요한 폭풍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몹시 바빴고 그 혼란에 기대어 감정적으로는 무던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평안이었지만, 현재의 삶에 집중하려고 해도 문득 떠오르는 아버지의 모습과 추억들, 삶의 곳곳에서 배어 나오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저의 방식대로 아버지를 추억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막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니 가장 선명하고 빈

번하게 떠오르는 기억은 가장 최근의 모습, 즉 수많은 호스를 달고도 용감하게 병마와 싸우시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많은 호스들이 아버지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실은 그것들이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팩 속에 담긴 수액이나 약품 등은 제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피는 저도 충분히 나누어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왔던 그 수혈 팩, 그 안에 담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저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헌혈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당분간은 가족들의 몸에 바늘이나 칼이 닿는 것을 보기가 힘들다는 어머니의 말씀으로 인해 쉽게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도 너무나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께서도 헌혈이 아버지를 추억하고 기리는 저만의 방식임을 이해해 주셨고 아버지의 첫 기일을 며칠 남긴 어느 날, 첫 헌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헌혈 예약일이 다가오는 며칠 전부터, 헌혈의 집에 가서 침대에 눕는 순간, 그 후 10분 남짓 피를 뽑는 시간, 휴식을 취하고 밴드를 떼는 순간까지 저는 오롯이 아버지 한 사람만을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마음껏 아버지를 생각하고 되뇌고 말도 걸어 보곤 합니다.

사실 아직도 헌혈이 조금 아프고 무섭지만, 바늘이 팔에 닿기 전 딱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면 그 순간 이전 정말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이 넘도록 가슴에 케모포트를 심고 수많은 바늘을 꽂아 넣었을 아버지의 모습. 그런 아버지가 생각날 때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은 저에게, 저도 것처럼 용기 있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를 추억하기 위해 저는 어김없이 헌혈을 하러 나섭니다. 많은 분들의 핏줄이 아버지께 이어졌고,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은 제가 또 저의 핏줄을 누군가에게 잇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잇고 지탱해 주었던 것처럼 저의 핏줄도 누군가의 생명을 잇고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내며 글을 마칩니다.